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古堂 安在祐 연구

고 광 명(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kkm0630@jejunu.ac.kr

[目 次]

I. 머리말

II. 안재호의 생애와 업적

III. 안재호의 경영활동과 자본축적

IV. 안재호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중에서 제조업(유기화학)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재일제주인¹⁾의 자본형성에 이바지한 古堂 安在祐(1915.1.23~1994.3.24)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안재호는 일본 간사이(關西)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1940년 安本化學工業所를 시작으로 1950년 日本有機化學工業(주) 등 8개 회사를 설립하여 상당한 경영성적을 이룩한 재일제주인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誠實, 忍耐, 信用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았으며, 합성수지 가공업에 전력을 다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기업가이다.

在日本濟州道民會(1993)에 의하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고액 납세신고자(법인회사)는 도쿄(東京) 4명, 고베(神戸) 2명, 오사카(大阪) 25명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재호는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1990년(142백만 엔)보다 약간 늘어난 148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서 일본 내에서 33,461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²⁾

안재호는 1940년 安本化學工業所를 창업하여 1947년 安本化學工業(주)으로 법인화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1950년 日本有機化學工業(주)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개시하고, 석탄산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日本有機化學工業(주)를 비롯하여 日本化成工業(주), 日新化學工業(주), 東京有機(주), 北陸化成工業(주), 安本興産(주), 大韓合成化學工業(주), (주)永安 등 유기화학 그룹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본국에 투자하고 제주도 지역발

1) 2009년 기준 현재 재일제주인은 재일한인 589,239명 중 93,162명으로 약 15.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도 161,447명, 경상북도 118,479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2)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전에 공헌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과 경영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고당 안재호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식·비공식 자료와 통계, 신문기사, 자서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본국 투자 및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고당 안재호의 기업가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안재호가 어떤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기업가활동을 규명하는 것은 비단 제주도 출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 기업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며, 특히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한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안재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안재호의 경영활동과 자본축적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안재호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안재호의 생애와 업적

1. 안재호의 생애

안재호는 1915년 1월 23일(호는 古堂, 본관은 順興安氏 28세손) 제주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加時里)에서 부친 안승훈(安承訓)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3살 때 모친(故 高從訓)과 함께 웅지(雄志)를 품고 일본으로 건너간 후, 동향 출신(城邑里)의 여성과 결혼하여 부인 宋成春(礪山宋氏) 사이에 자녀 5남(昌柱·昌成·悅三·悅司·光伸) 4녀(容禧·悅子·秀子·容子)를 두었다. 평소 후손들의 일본화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들의 결혼인 경우, 아들은 고국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머느리로 삼고, 딸은 가급적 고국으로 출가시키겠다는 집념으로 일관하여 온 것으로 보아 그의 철저한 조국애와 민족의식을 엿볼 수 있다.³⁾

그는 공립보통학교(전 가시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 사는 오사카에서 정주하면서 향학열이 왕성하여 일을 하면서도 오사카조토상업학교(大阪城東商業學校)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형편이 못되어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16살이 되던 1930년에 오사카합성수지화학(大阪合成樹脂化學)연구소에 입사하여 4년간 합성수지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습득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20세가 되는 1934년에 후토화학공업(不動化學工業)주식회사의 전신인 大同라이트주식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했다.⁴⁾

3) 吳大賢 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59쪽.

4) 金府煥 編著(1977), 『在日韓國人社會小史(大阪編)』, 共同新聞社, 69쪽.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조국이 해방되면서 그는 조국에 돌아가기 위해 공장의 기계와 설비, 그리고 가족을 본국으로 실어가기 위해 기범선(機帆船)을 사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개인의 재산 운반뿐만 아니라 당시 귀국하지 못하고 곤경에 빠져 있던 수만 명이나 되는 재일한인의 수송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그는 목조 기범선(100톤급)을 샀다. 당시 그는 마음속으로 그 배를 다시 팔면 살 때보다 더 많은 값을 받게 되어 돈벌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진 돈을 털어서 배 한 척을 샀더니 그 배는 선창을 수리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수리를 마친 뒤 안재호는 200여 명의 재일한인을 싣고서 부산을 향해 출항했고, 도중에 급유를 위해 오사카 시리나시가와(尻無川)에 기항했다. 그런데 항해 도중 야간 조명도 없는 상태에 밤늦게 접안하다가 불행하게도 전쟁 때 폭파된 배 위에 얹혀서 선창이 대파되어 그만 좌초되고 말았다. 다행히 200여 명의 목숨은 건졌지만 배에 싣고 있던 화물은 모두 젖어 못 쓰게 되어 배상을 하고 그 배를 인양하여 다시 수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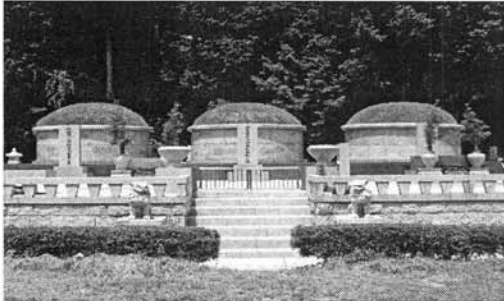
그러나 1950년 12월 25일 맥아더 사령부에서 목조선은 사람을 태우고 현해탄을 건널 수 없다는 법령이 내려졌다. 당시는 식량 부족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규수(九州)지역에 가서 돼지, 쌀, 고구마 등을 사다가 팔면 장사가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생소한 규수 지역에 가서 수소문하여 고구마 1만관, 말린 고구마, 쌀, 돼지 등을 대량 구입하여 싣고 1월 25일 오사카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1월 28일 밤 10시쯤 고베(神戸) 와다미시키(和田岬)를 지나다가 전시 중에 폭침된 선박의 잔해에 또다시 충돌하여 만재했던 짐과 함께 배는 순식간에 침몰하고 새벽 5시쯤 구조반 덕분에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 노력과 고생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⁵⁾

결국, 그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어 버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했던 합성수지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본업으로 돌아가려 해도 시작할 자금이 없었다. 고민 끝에 종전의 단골이나 친지들에게 그때까지 겪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하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그때 그는 평소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1954년과 1955년에 연속해서 일본 전국 플라스틱 종합대회에서 통상성(通産省) 대신(大臣)상을 수상했고, 1955년과 1958년에는 오사카시장(大阪市長)상을 수상했다. 더욱이 그는 일본유기화학(日本有機化學)주식회사가 개발해서 취득한 특허권을 자기들만 독점하지 않아 일본 업계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단추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큰 공로로 1965년 일본합성수지 단추공업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1960년대까지 일본 국내 단추생산의 70%를 점유하면서 단추 수출에 기여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1967년 일본 통상성으로부터 수출 공헌 인정증서를 받았고, 일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재

5)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70~71쪽.

일한인 기업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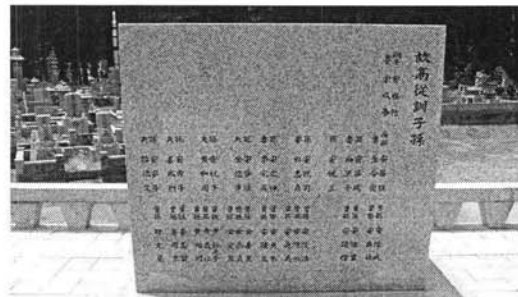
<사진 1> 安本家 묘소(左 부인 中 본인 右 모친)



<사진 2> 古堂 安在祐 묘소



<사진 3> 故 高從訓 묘비 건립 취지



<사진 4> 故 高從訓 가족 관계

2. 안재호의 비석 건립 및 동상 제막

제주도 가시리는 1948년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 재건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궁핍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재·가구는 소실되었고, 농토는 황폐되었으며, 축산은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생활난이 극에 달하였다. 또 1956년 대홍작으로 인해 주민들은 실의와 좌절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1956년 말 고향을 방문한 그는 연이은 흉년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향리 주민들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었다. 그는 우선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향리 주민에게 거액의 금품을 회사하여 향토 주민을 도탄에서 구혈하였다.

또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고향 출신 한인들에게 마을의 참상을 소개하고 고향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각 지역별로 친목회 조직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고무된 한인들은 서로 친목회 조직에 참가하여 고향 돕기에 나섰다. 이것이 가시리 재건의 밑거름이 되면서 주민들은 그의 열정적인 지원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 재건에 매진하게 되었다. 당시 모금에 참여한 가시리 재일제주인은 오사카(大阪)친목회 50명, 도쿄(東京)친목회 19명, 센다이(仙台)친목회 8명 등 3개 친목단체 회원(77명)으로부터 417,400원의 거액을 모금하여 향리주민을 구제하였다.⁶⁾

6)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1988), 『加時里誌 가스름』, 248쪽.

당시 마을 주민들은 1957년 7월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복지와 향토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그들의 거룩한 공적과 두터운 애향심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재일교포 구휼 기념비(在日僑胞救恤記念碑)를 세웠다.
비석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祖國回復(조국회복) 慰鄉送金(위향송금)
其恩莫大(기은막대) 厥澤重深(귄택중심)
持節於義(지절어의) 救災干心(구휼 간심)
惜乎可美(석호가미) 立碑永吟(입비영음)

1957년 10월 加時里民 一同 建立

또한 안재호는 본리 출신으로 일본에서 실업가로 성공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편단심으로 조국과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였다. 그는 고국의 복구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1956년 말 귀국하여 대흥작으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향리를 방문하고 거액의 금품을 희사하였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향리 주민을 도탄에서 구하고 복지와 마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거룩한 공적과 애향심을 길이 빛내고자 안재호 선생 구휼기념비(安在祐 先生 救恤記念碑)를 세웠다.⁷⁾

1957년 7월 加時里民 一同 建立

가시리 주민들은 그 동안 안재호의 향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잊을 수 없어 다시 그의 향토애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1976년 고당 안재호 선생의 동상을 리(里)사무소 경내에 건립하여 제막함으로써 우리의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기로 하였다.⁸⁾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가시봉(加時峰) 맑은 정기(精氣)타고 자라나
현해탄(玄海灘) 저 너머에 쌓아 온 보람
인내(忍耐)와 근검역행 업(勤儉力行 業)을 이루니
마침내 우러르는 님이 되셨고
애향(愛鄉)의 횃불 들어 두루 비추니
거룩한 그대 공덕(功德) 찬연(燦然)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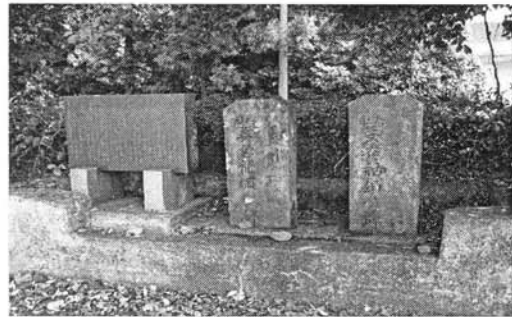
-1976년 9월 9일 가시리 주민 일동 건립

7)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1988), 위의 책, 250쪽.

8)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1988), 위의 책, 253쪽.



<사진 5> 古堂 安在祐 동상 건립



<사진 6> 古堂 安在祐 구휼기념비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안재호는 성실과 노력으로 일본 실업계에 투신하여 거성(巨星)으로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은의에 사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강조한 그는 평소 안으로 근면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⁹⁾을 좌우명으로 삼아왔으며, 특히 조국애와 향토애가 강하여 고국과 향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안재호의 경영활동과 자본축적

1. 안재호의 경영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1946년 4월 야스모토(安本)전기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다. 제품 제조는 합성수지 성형 재료였지만 성형 제품은 주로 배선 기구였다. 당시는 물품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배선 기구는 만들기 바쁘게 팔렸다. 1946년 말에는 종업원이 200명 정도였는데 1950년에는 500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안재호는 시대의 흐름을 제빨리 감지하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도권에 진출하기 위해 차바현(千葉縣) 이치가와시(市川市)에 공장을 신설했다. 또한 생산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1950년 8월 야스모토전기제작소를 일본유기화학공업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한 그는 1952년 플라스틱 단추제조 전문회사인 일본단추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합성수지 성형업을 시작했다(<표 1>참조). 1956년에는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에 도쿄유기(東京有機)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리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을 제조했고, 1960년에는 와카야마켄(和歌山縣) 가이난시(海南市)에 닛신화학공업(日新化學工業)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965년에는 이시가와켄(石川縣) 야마나카(山中)에 호쿠리쿠화성공업(北陸化成工業)을 설립하여 칠기 소지 및 일반 성형 가공을 시작했다.

9) 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악(邪惡)하여 도리(道理)를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이후 그는 그간 모은 자금으로 오사카시에 수천 평의 땅을 사들이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앰파이어 모터 풀'이라는 이름으로 주차장 경영을 시작하여 1972년에는 야스모토흥산(安本興産)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매우 빠르게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재일한인 기업가가 되었다. 이 외에도 그는 도쿄, 오사카 지역에 10개소의 주차장영업을 흡수하였고, 부동산 분야도 겸영하여 오사카¹⁰⁾ 시내에서 맨션경영을 착수하였으며, 기타 무역업무와 보험대리점 업무도 경영한 바 있다.

<표 1> 日本有機化學工業(주) 회사 현황

기업명	日本有機化學工業(주)		대표자명	安本友士
설립년도	1950년 4월		창업년도	1950년 4월
영업목적	골프 연습장 관리운영, 모터풀장 등 부동산 임대업			
자본금	99,587천 엔		종업원	10명
임원	安本友信, 安本悦司, 安本光伸(감)		安本友信, 安本友士, 安本悦司	
소재지	東大阪市御廚榮町 3-2-28		사업소	본사 부근 지역 5개소
업적	결산기	매출액(천 엔)	이익(천 엔)	배당(천 엔)
	2006년 3월	352,000	22,500	0
	2007년 3월	360,000	30,000	0
	2008년 3월	355,000	30,000	0
개황	업무는 골프 연습장과 모터풀장,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음. 수익성도 매우 안정적이며 회사 체질강화도 시도하고 있음.			

자료 : (주)東京商工リサーチ(2009), 『平成21年版 東京信用録-近畿・北陸版 上巻』.

2. 안재호의 자본축적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부 재일한인은 이러한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재일한인들은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중에서 파친코 사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빨라 사업기반이 취약한 한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¹¹⁾

1950년대 중반 일본 정부의 규제로 많은 파친코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나 재일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계(民族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²⁾ 재일한인들은 그 덕택으로 파친코업계를 점차 장악하면서 건실한 사업기

10)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342쪽.

11)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반을 구축해 나갔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전후 일본에 남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한인들이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 중 상당수의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류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독특하게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¹³⁾

<표 2>에서 보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고액 신고자는 도쿄 4명(4,981백만 엔), 고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소득신고 금액을 보면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 애월읍 390백만 엔, 한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은 각각 1명으로 제주시 출신이 50% 이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신고금액은 1990년과 1991년 기준으로 안재호가 경영하는 일본유기화학공업(주)이 다른 기업가에 비해 중간정도 순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일본 내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148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 제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1년도 신고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12)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쪽.

13)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예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39쪽.

<표 2> 제일제 주인 기업가 소득신고 순위(1990년과 1991년)

(단위 : 백만 엔)

順位	會社名(所在地)	代表者(出身地)	1990년 신고금액	1991년 신고금액	일본 내 순위
1	天馬(東京)	金鳳根(濟州市)	4,228	4,462	1,121
2	富士電線(大阪)	康忠男(表善面)	866	875	5,562
3	平和産業(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755	6,451
4	大邦興業(大阪)	李鼎根(大靜邑)	676	719	6,758
5	星田골프(大阪)	金致富(濟州市)	3,836	710	6,854
6	富士電販(大阪)	康忠男(表善面)	614	666	7,302
7	平和고무(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593	8,271
8	盛宏(大阪)	安仁淳(濟州市)	523	461	10,717
9	光住建(大阪)	姜哲熙(涯月邑)	122	390	12,795
10	共榮産業(大阪)	李純安(大靜邑)	244	369	13,603
11	金海商事(東京)	金坪珍(濟州市)	171	361	13,842
12	南海會館(大阪)	金昌仁(翰林邑)	132	340	14,667
13	朝日사이렌(大阪)	康贊旭(翰林邑)	412	282	17,691
14	藤田土地(大阪)	金良雄(濟州市)	59	233	21,381
15	日本有機(大阪)	安在祐(表善面)	142	148	33,461
16	ABC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127	141	34,986
17	近畿自動車教(大阪)	金奉逸(朝天邑)	117	114	43,129
18	大德企業(大阪)	李林根(大靜邑)	99	113	43,470
19	그랜드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78	112	43,486
20	共和紙料(大阪)	金永孝(南元邑)	109	107	45,471
21	松岡단추(大阪)	李寬珩(翰京面)	53	102	47,835
22	第一觀光(東京)	梁熙晋(南元邑)	78	94	51,906
23	愛三産業(東京)	白昌鎬(濟州市)	94	64	74,089
24	眞田化工(大阪)	愼在孝(濟州市)	60	62	76,087
25	丸和(大阪)	吳文弼(翰林邑)	-	61	78,105
26	大信(大阪)	韓長淑(朝天邑)	41	58	81,535
27	新井고무(大阪)	朴達炯(濟州市)	56	55	84,416
28	東洋産業(大阪)	朴東烈(西歸浦)	-	49	93,708
29	呂慶苑(大阪)	金其彦(旧左邑)	-	49	95,145
30	第一化成(大阪)	金富雄(濟州市)	-	48	96,755
31	東京運輸(大阪)	金達孝(城山邑)	43	41	111,185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표 3>은 안재호 가족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세금 납부실적(天王寺稅務署管内)을 조사한 것이다. 가족들은 총 15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명은 天王寺稅務署管内에서 다른 가족에 비해 많이 납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안재호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약 30,000천 엔 정도를 납부한 반면 나머지 가족들은 198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4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安在祐家の 연도별 세금 납부실적(天王寺税務署管内)

(단위 : 천 엔)

년도	安本隆男	安本友士	安本友信	安本光伸	安本悦司	기타
1984	12,575	12,324	11,617			35,403(요시히로)
1985	20,874	17,790	24,330			11,325(요시코) 16,621(미츠루)
1986	28,429	23,314	33,475	11,965	10,146	12,967(요시코)
1987	32,869	25,240	35,295	13,221	11,958	13,842(요시코)
1988	33,057	23,602	33,346	12,492	11,353	12,900(요시코) 155,692(마사에) 10,532(미사에)
1989	29,227	24,326	39,106	16,998	17,049	
1990	39,510	25,404	39,396	17,525	18,378	
1991	27,280	25,782	39,929	17,463	18,265	57,937(아키코) 15,628(하루에) 10,640(가요코)
1992	35,479	32,443	48,484	21,736	24,177	34,690(미치히로)
1993	32,104	27,186	47,875	22,618	23,561	56,692(미치히로)
1994	27,668	25,878	36,382	12,814		
1995		25,534	34,488	10,863	11,679	
1996		31,395	39,629	10,139	10,845	
1997		24,950	30,676			
1998		23,791	43,472		16,022	
1999		26,444	28,775			
2000		32,616	33,763	15,095	14,581	
2001		21,815	21,892	11,997		
2002		23,215	21,965			11,264(히로히사)
2003		25,883	26,934			12,684(히로히사)

자료 : 東京國稅局管内(각 년도), 『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税者全覽』, 清文社에서 필자 조사 작성.

IV. 김평진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1. 김평진의 경영정신

기업에는 제각기 독특한 경영정신이 있다. 대개 기업가의 경영철학이나 경영신조에서 나오는 경영정신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업원 전체의 공감대로 정착하여 그 기업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더욱이 경영정신은 기업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개인적 신조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정신이라 함은 창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지주, 기본적 가치, 실천적 행동지침, 신념, 태도 등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켜야 할 정신적 및 실천적 행동지침이며, 경영철학, 경영사상과 미래 지향적인

행동원리, 지도 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가의 가치관이나 경영철학, 사상 등을 정신적 신조로 삼아 구성원의 실천적 경영 지침을 경영정신으로 명시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로서 대부분 경영정신은 사훈, 좌우명, 생활신조, 社是, 경영철학, 경영사상, 창업이념 등 정신적 가치관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영행동 실천 강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경영정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¹⁴⁾ 그런 의미에서 안재호는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영정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誠實’, ‘忍耐’, ‘信用’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그는 성실과 인내에 바탕을 두고 신용으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나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성실, 인내, 신용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를 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가 50년간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사랑을 받고 외길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여건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거나 비굴해 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을 가져 신용을 쌓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후 기계설비와 가족을 본국에 수송하기 위해 간신히 구한 목조 기범선을 운항하다 좌초되어 큰 고생을 하고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다가 전에 단골이었던 사업 거래처와 친구들을 통해 채기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1946년 4월 安本電器製作所를 만들고 재출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쌓아둔 신용이 큰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그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50년 간 이상을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일제주인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왔다. 그가 日本有機化學工業(주)를 비롯하여 日本化成工業(주), 日新化學工業(주), 東京有機(주), 北陸化成工業(주), 安本興産(주), 大韓合成化學工業(주), (주)永安 등 8개 회사를 차례로 설립·운영하여 괄목할 만한 영업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다.

따라서 안재호는 성실, 인내, 신용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기업가활동을 수행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제일제주인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에서도 항상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객우선, 근면, 절약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제일제주인 기업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 인내, 신용에 의한 경영관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근검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안재호의 사회적 공헌

14)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32쪽.

15) 鶴岡正夫(1981), 『在日韓國人の百年一私の生活信條』, 育英出版社, 14~16쪽.

기업은 사람, 땅, 돈, 자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 기업은 이것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활용해서 국내외 어떤 기업의 제품보다 양질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는다.⁷⁾ 그와 같은 경영 노력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그리고 배당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나머지를 이윤으로 축적해서 기업발전의 재원으로 쓴다. 이처럼 기업의 공헌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 조성이다. 곧 기업은 수익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경영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배당, 지역사회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1.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한일국교 정상화는 일본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안재호에게 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1967년 9월 대한합성화학공업(大韓合成化學工業)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요소 수지 및 멜라민 수지를 생산하였고, 이와 동시에 칠기 및 멜라민 식기류를 생산했다(<표 4>참조). 특히 동사에서 생산된 멜라민 식기 및 유리 식기는 서울의 일류 백화점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었다.

이 회사는 1967년 창업하여 1973년 일본유기화학공업(주)과 51% 대 49% 비율로 외자 도입법에 의해 세워진 합작투자 회사로 1975년부터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수출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동사는 1994년 안재호가 타계한 이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4남 에츠지(悅司)가 대표이사를 계승하였으며, 2006년부터 5남 미츠노부(光伸)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동사는 1967년 설립한 이후 3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가운데 연간 2만 4천 톤의 생산설비를 가져 공업용 호루마린을 생산한 바 있다.⁸⁾ 현재 동사는 1967년 회사를 창립한 이래 한국 합성수지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⁹⁾

결국, 안재호는 노력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산 사람으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이었다. 배가 두 번이나 침몰했고, 세 번이나 화재를 당했으며, 다섯 번이나 전 재산을 잃었지만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

7)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6쪽.

8)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앞의 책, 1342쪽.

9)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앞의 책, 75~76쪽.

이상의 신용으로 일본 은행들은 대접해 주었다. 오로지 신용 하나만으로 일본 사회에서 기업가로서 성공한 그는 조국과 고향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하고 싶었으며, 그것이 조국애와 애향심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大韓合成化學工業(주) 현황

기업명	大韓合成化學工業(주)	기업공개 분류	외감
대표자명	安光伸	기업규모	소기업
사업자 번호	109-81-00000	법인/주민번호	110111-0000000
주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업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설립일자	1967년 9월 8일

2. 제주도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학연(學緣)·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¹⁰⁾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은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 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증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기증이 제주도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 오히려 재일제주인의 기증현상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거나, 나아가 의존심의 강화, 기대욕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 형제애·상호 동반적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물질적 제공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다가 수혜자인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사후처리나 심적 보상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¹¹⁾

10)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중에서 안재호는 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표 5>에서 보면 안재호는 가시리초등·중학교 교실 신축(410천원)을 비롯하여 시설확충, 주민회관 신축, 전기가설, 도로포장 등 가시리 지역에 1956년부터 1987년까지 현금 7,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그 외 학습용구와 같은 현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의 제주도에 대한 지원은 출생지인 가시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기부를 요청해 오면 늘 쾌척했다. 그 중 제주도립병원에 의학 서적,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학교시설, 제주대학교에 비품구입 성금 및 도서관 비품 비용을 기증하였다. 또한 제주도청에는 고성능 쾌속정을 회사하였고, 예총 제주도지부에 한라문화제 성금을 지원했으며, 제주도 체육회 및 전국소년체전 성금 등을 여러 차례 기부했고, 제주도 각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 사업도 지원했다. 제주도청이 파악하고 있는 기부액만 해도 1억 6,000만원이 된다. 이 기부는 195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실지로는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¹²⁾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재일제주인의 기증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안재호의 기증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1)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1~124쪽.

12)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200~201쪽.

<표 5> 고당 안재호의 기증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권, 개, m')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제주도청	의학 서적	현물	174	87	제주도립병원용 도서	1963
도교육위원회		현금	647.5		학교시설 기금	1963
제주대학교		현금	35		제주대학 비품구입 성금	1962
	도서(日書)	현물	460	229	제주대학 학술연구용	1963
		현금	2,870		제주대학 비품구입 성금	1963
제주도청	고성능패속정	현물	5,000	1		1967
		현금	500		빌리호 태풍 의연금	1970
제주도체육회		현금	250		도체육회 폴장시설 기금	1972
제주도청		현금	500		새마을 사업 성금	1973
예총 제주도지부		현금	100		한라문화제 성금	1973
제주대학교	도서	현물	1,000	289	제주대학교 도서관 비품	1974
예총 제주도지부		현금	200		제13회 한라문화제 성금	1974
제주도체육회		현금	70,000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	1984
애월읍	시계	현물	18	1	애월상업고등학교 비품	1963
		현금	18		애월중학교 운영비	1962
한경면		현금	18		신창중 운동시설(농구대)	1963
		현금	18		신창중학교 교실 증축비	1963
2도동		현금	17.5		신성여고 체육시설용	1962
화북동	철봉, 평행봉	현물	25	8	오현고 시설 및 체육시설	1962
		현금	17.5		제주사범학교 비품	1962
아라동	자동복사기	현물	17.5	1	제주여고 비품	1962
노형동		현금	62		제주농고·제주제일중 교육용 용구 구입	1962
2도동		현금	30		광양초등교 앰프시설	1967
		현금	500		오현각 건립 기금	1967
이호동		현금	800		독립지사 및 김만덕 기념사업	1976
대정읍		현금	17.5		무릉중학교 교문건립	1963
		현금	20		무릉중학교 정문건립	1964
남원읍	충전용발전기	현물	50	1	남원중학교 비품	1963
성산읍	타자기	현물	18	1	성산수고 비품	1962
	토지	현물	3,000	1,098.9	성산수고 시설비	1963
표선면		현금	410		가시초교·표선중 건축	1964
	앰프시설	현물	140	1	가시리 문화시설	1962
	운동복	현물	17	12	가시리 청년위문	1963
		현금	180		가시리 심정굴착 및 리사무소 비품 구입	1963
		현금	35		표선중 택지 구입비	1963
		현금	20		표선중 택지 구입비	1964
정방동	국기계양대	현물	17.5	1	서귀중 국기계양대 시설비	1962
		현금	100		서귀중 가교사 건립비	1965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표선면		현금	1,000		가시리~표선리간 직통도로	1967
	도서함	현물	30	1	표선초등학교 비품	1967
		현금	4,470		가시리주민 공공복리	1967
		현금	30		가시리주민 공공복지	1967
		현금	1,000		가시리 상하수도 시설	1967
		현금	1,500		표선중 택지 구입비	1967
		현금	30		가시초교 캐비닛 구입비	1967
		현금	30		화산초교 교재 구입비	1967
		현금	580		표선면사무소 회의실 증축	1968
	트랙터	현물	1,200	1	표선면 비품	1968
		현금	700		가시리 상수도 시설	1968
		현금	3,000		세화리 전기가설	1973
	朝禮臺 외 1	현물	200	2	표선상고 비품	1973
		현금	1,500		표선중학교 이설비	1973
	朝禮臺 외 1	현물		6	표선상고 교육시설	1973
		현금	200		가시초교 실험기구 구입	1973
		현금	2,000		표선중 운동장 스탠드 시설	1974
		현금	1,000		가시리청년회 체육진흥기금	1974
		현금	10,000		표선~가시리간 도로포장	1974
	앰프 외 7	현물	100	1	표선중 비품	1974
		현금	30,000		가시리~재동목장간 도로포장	1975
		현금	5,100		가시리초교·표선초교·표선중·상고 교육시설	1976
	타자기	현물	1,000	7	표선상고 비품	1976
		현금	1,000		표선면 연합청년회 청년회의소 운영비	1976
		현금	3,500		가시초교 복사기 구입	198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鄕의 보람』에서 필자 조사 작성.

V. 맺음말

본 연구는 안재호(安在祐)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일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어떤 경영철학으로 일본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축적에 기여했으며, 또 본국을 비롯한 제주도에 대한 그의 애향심이 제주도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면밀히 고찰한 것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행동패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했고 그것이 자산이 되어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되었으며, 외길을

건지 않고 꾸준히 합성수지 분야로만 충실하게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50년 유기화학공업을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표선면에 공공시설 건설, 학교 건립, 마을 전기 가설, 도로 포장 등에 고액의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립병원에 의학 서적을 보냈고, 제주대학교에는 도서와 비품을 기증했으며, 제주도청에는 고성능 쾌속정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따라서 안재호는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정신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본국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여 왔다. 결국, 그는 일본유기화학공업(주)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기업가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한국의 경제발전에 투자하였고, 제주지역의 교육사업과 마을 발전에 공헌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17~242쪽.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 古堂 安在祐(1976), 『광복(光復)의 시대(時代)에 살면서』, 世原文化社.
-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1~124쪽.
-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1988), 『加時里誌 가스름』.
-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 吳大賢 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 30年史』.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
- (주)東京商工リサーチ(2009), 『平成21年版 東京信用錄-近畿·北陸版 上卷』.

共同新聞社(1989),『在日韓國人實業名鑑 1(關西版)』.

金府煥 編著(1977),『在日韓國人社會小史(大阪編)』,共同新聞社.

東京國稅局管内(각 년도),『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税者全覽』,清文社.

梁京姬(2009),“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
に”,『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页.

永野愼一郎編(2010),『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岩波書店.

入管協會(2007),『在留外國人統計』.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在日韓國人會社名鑑』.

統一日報社(1975),『在日韓國人名錄』.

統一日報社(1976),『在日韓國人企業名鑑』.

鶴岡正夫(1981),『在日韓國人の百年—私の生活信條』,育英出版社.